충주시 금릉동 총제공신도비 수립

6월 23일 제막행사에 200여명 모여

▲ 총제공신도비 제막행사의 식회가 열리고 있다.

▲ 신도비에서 제막고유제가 봉행되고 있다.

충주의 탄금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금릉동金陵洞의 산13번지 광명산光明山으로 불리는 대로변의 구릉에 안동권씨 추밀공파 양촌陽村 문충공文忠公의 장자로서 가정대부嘉靖大夫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를 지내 후손이 총제공摠制公으로 부르는 시조후 17세손 휘 천踐의 묘소가 있다. 그 묘하에 신도비를 세워 6월 23일, 음력 5월 20일 11시에 제막 행사를 거행하였다. 행사는 묘산에 인접한 대로변의 파라다이스웨딩홀 예식실에서 먼저 식회를 열어 국민의례、선조에 대한 묵념、내빈 소개、회장 인사、격려사、내빈 축사、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하고 이를 마치고는 묘하로 올라가 테이프 절단과 제막除幕에 이어 고유제告由祭를 봉행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묘하에서의 행례를 마치고는 다시 예식장으로 내려와 그 피로연 식당에서 점심 음복을 하고 오후 1시경에 모두 파하였는데 참석 인원은 후손과 내빈을 합하여 2백여명이었다.

식회의 진행을 맡은 총제공종회의 총무 권혁로權赫魯씨는 경과보고에서 5백여년 후손의 숙원이던 총제공의 신도비를 세우는 일이 그 중자 길창군吉昌君 종중과 상주尙州문중의 헌성으로 이루어졌으며 총비용은 4천만 원인데 비석과 각자대 등의 제작비가 3천5백만 원, 행사비 등 부대비용이 5백만 원 정도 소요되었음을 간략히 밝혔다. 권오영權五榮 종회장이 도포에 유건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가 인사말을 하고 문충공종회장 권영위權寧偉씨가 격려사를, 충주향교 전교 이완주李完周씨가 내빈축사를 하였다.

묘하 신도비 앞의 행사에서는 종중 유사와 주요 내빈 등 10여인이 대표로 테이프를 절단하고 이어 백포로 만든 밧줄을 당겨 제막을 하였다. 다음에 고유제에서는 제막한 신도비 앞에 제물이 진설되고 권오영 종회장이 헌관이 되어 작헌함에 이어 찬자 권영창權榮昶씨가 독고유를 하였다. 총제공의 19대손인 권영창씨는 고유문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문충적사 탄우화벌 준건여계 훈음입조 권우막비 누피저훼 환로엄지 상대장령 봉정지위 전관제향 판사농시 수명추관 궤향천사 역전주목 유애융치 총제우군 융정통수 영건경묘 승행선의 재석둔석 추령간맥 왕자을축 면봉조택 능곡변역 세기육백 잔예면력 미황거역 근고사적 조략기적 만시현각 차호황석文忠嫡嗣誕于華閥屯蹇麗季勳蔭立朝眷遇莫比累被毁宦路淹遲霜臺掌令奉正之位專管祭享判司農寺受命趨館饋餉天使歷典州牧遺愛隆熾摠制右軍戎政統帥營建敬廟承行先意在昔 矣秋嶺艮脈往者乙丑緬封兆宅陵谷變易歲幾六百孱裔綿力未遑鉅役僅攷史籍粗略紀蹟晩時顯刻嗟乎惶惜 : 문충공의 적사로 화려한 문벌에서 태어나시어 고려말의 험난한 시대에 막히셨다가 가문의 훈덕으로 벼슬에 나가서는 임금의 권우가 비할 바 아니었으나 거듭 헐뜯음을 당하여서는 환로가 지체되시었습니다. 사헌부 장령이 되고 봉정대부가 되어 제향을 전관하고 전농시를 맡아서는 명을 받아 태평관에 나아가 천자의 사신을 맞이하고 여러 큰 고을을 두루 다스리며 백성에게 남긴 덕이 성대하였습니다. 우군총제에 올라서는 군사일을 총괄하고 경순왕 사당을 세워서는 선대의 뜻을 이으셨는데 옛적에 장사한 곳이 추령의 간좌이더니 지나간 을축년 4월에 여기로 면봉하였습니다. 세상은 변천하고 세월이 6백년을 흘러도 잔약한 자손이 힘이 부족하여 큰일을 실행치 못하다가 근근이 사서를 상고하여 간략히 사적을 기록하여 뒤늦게야 드러나게 새겨 세우니 황공하고 애석할 따름이옵니다.

이 고유문을 지어 봉독한 권영창씨는 1985년 4월에 총제공의 묘소를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추령에서 이곳으로 면봉하였을 당시 그 묘갈명墓碣銘을 짓고 그 글씨를 썼으며 이번에 세운 신도비문도 지었다.

총제공은 자字가 백수伯修인데 그 탄생연월일을 실전하였다. 태종 6년, 1406년 7월 27일자 왕조실록에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오고 세종 3년, 1421년 2월에는 상호군上護軍으로 나온다. 그 사이 사헌부 감찰監察과 완산부完山府 판관判官 및 부령副令 등의 직임을 거치고 충주의 덕평촌德坪村에 별업을 정해 은거한 기록 등이 그 부친 양촌과 숙부 매헌梅軒의 시문에 나온다. 영의정 성석린成石璘의 독곡집獨谷集에는 공이 평안도 성천부사成川府使로 나가는데 이미 8개 고을을 역전하여 유애비遺愛碑가 섰다고 나온다.

세종 7년, 1425년 12월 4일자 실록에 공이 가정대부嘉靖大夫로써 우군동지총제右軍同知摠制로 보임되고 4년 뒤 1429년 9월 10일에는 대간의 탄핵으로 제천堤川에 부처되는 기록이 나온다. 두 달 뒤 그 아우 문경공文景公 제 가 진헌사로 명나라에 갔다가 돌아와 형을 신구하여 배소가 경기 지역으로 양이量移되고 세종 12년, 1430년 8월 22일자 실록에는 공이 전함前銜 동지총제로 나온다.

가전에는 공이 완산부윤完山府尹으로 흉년에 관곡을 풀어 백성을 균활케 하였다고 하고 나주읍지羅州邑誌에는 공이 세종 5년, 1453년에 목사로서 선정을 베풀어 칭송이 있었고 이듬해 10월에 내직으로 승진되어 돌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공은 또한 장례원掌隷院의 도관都官으로 있을 때 원주原州에 신라 경순왕의 경천묘敬天廟를 창건하였다. 조부 정간공靖簡公이, 시조 태사공이 신라에 단성丹誠한 바를 생각하며 그 말주末主 경순왕의 5백년 못세운 사당을 세우고자 목은 이색과 운공 원천석元天錫에게 의논하여 합의되자 아들 양촌에게 명하니 양촌이 장자인 공으로 하여금 준행케 하여 경순왕의 최초 사당은 권씨의 조자손 3대가 들어 이룩한 바 되었다.

격려에 감사합니다

6월 3일 안숙공종회(회장 權炳洪)에서 10만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니다.

공은 천품이 돈후하여 효우孝友를 겸행하고 인덕과 관후로 처세하였으나 말년에 가묘를 못세울 정도의 빈궁과 병고에 시달리다가 세종 13년, 1431년 8월 24일에 졸했다. 생질인 서거정徐居正의 필원잡기筆苑雜記와 권별權鼈의 해동잡록海東雜錄에 공이 목은의 아들인 그 매서妹壻 양경공良景公 이종선李種善과 등하불명계燈下不明契를 만들었다는 일화가 실려 있다.

공의 배위 정부인貞夫人 단양우씨丹陽禹氏는 판서 숭렬崇烈의 딸, 밀직密直 복생福生의 손녀인데 공보다 27년 후인 세조 4년, 1458년 8월 24일에 졸했다. 정부인은 부군을 중년에 여읜 뒤 친가가 있는 충주의 촌장村莊에 거하면서 4남2녀를 길러 입신시켰다.

공의 묘소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추령의 선고묘 아래 간좌艮坐로 있었고 정부인 묘소는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에 있었는데 1985년 4월 25일에 충주시 금릉동 광명산의 현재 자리에 갑좌甲坐로 이장 합폄하였다.

<사진 · 글 權五焄>

▲ 새로 수립된 총제공의 신도비

▲ 총제공의 묘소